

## 한전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89% ↑ ... 7분기 연속 흑자

### 3조 7536억 원... 요금조정 등 영향 개선 실적에도 재정난 해소 미지수

연료가격 안정화와 요금조정 영향에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를 포함해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은 올해 1-3월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24조 2,240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영업비용은 20조 4,704억 원, 영업이익은 3조 7,536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과 영업비용이 각각 전년동분기 대비 4.0%·6.9% 올랐고 영업이익은 무려 188.9% 상승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296.3% 오른 2조 3,6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료 가격 하락 및 안정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등이 요인으로 관측된다.

세부적으로 전기판매수익이 전년비 4.7% 증가한 23조 2,112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량이

0.5% 감소했지만 판매단가가 5.3% 오르면서 증가한 금액은 1조 462억 원이다.

원전 발전량 증가에 따라 발전자회사의 석탄·LNG 발전량 감소 및 연료가격 하락으로 연료비는 1조 1,501억 원 감소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4,461억 원 줄었다.

기타 영업비용의 경우 발전 및 송배전설비 신규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 늘어난 732억 원 수준을 보였다. 한전의 1분기 영업비용은 20조 4,704억 원으로 전년대비 6.9% 줄었다.

다만 이같은 개선된 분기 실적에도 한전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가 총 30조 9,000억원에 달하고 누적 부채도 200조원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전력구입비 절감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환율 및 국제 연료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한전KDN이 최근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사업 지정을 위한 컨소시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DN 제공

## 한전KDN, 영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협력

### 에너지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공유

한전KDN은 최근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사업 지정을 위한 컨소시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은 영암군이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참여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을 비롯해 LS일렉트릭, 한국전기연구원, EIPGRID, MC에너지, 목포대, HD현대삼호,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지정을 위한 평가 대응 등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지에 노력한다. 협약의 핵심인 ‘Self-DR 기반 수요반응 실증’과 ‘공공형 가상발전소(VPP) 플랫폼 구축’ 중심의 실증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영암군 상호호흡 일대 지역 단위 유연자원을 발굴하고 에너지 감축 응동, 지역 생산 전력과 소비하는 분산자원 통합 관제 등에 집중한다. 전력직접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화폐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한전KDN은 지역내 생산, 소비, 거래되는 모든 분산에너지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구축,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내 산·학·연 기관에 제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구상한다.

한전KDN 관계자는 “전남지역의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으로 인한 실질적 계통포화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전력을 지산지소(地産地消)할 수 있는 현실적·실체적 사업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타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한전-한국전기안전공사, ESS 안전 관리 기술협력

한국전력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관리 진단 기술 협력에 나선다.

한전은 14일 전력연구원에서 ‘ESS 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심은보 원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송길목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자체 개발한 ‘지능형 배터리 열화관리 시스템(BiMS)’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관리하는 민간 ESS 설비 10개소(100MW)에 적용해 실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ESS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이 개발한 BiMS는 배터리시스템의 가장 작은 단위인 배터리 셀(cell) 단위까지 상태를 감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알고리즘을 활용해 정확한 시스템 상태 측정으로 위험요소를 사전 예측할 수 있어, 기존 제작사 배터리관리시스템 대비 차별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BiMS는 한전이 운영하는 전체 1,404MW



한전이 14일 전력연구원에서 ‘ESS 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제공

ESS 중 1,052MW에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사 시스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진단 알고리즘 오류와 잠재 위험 셀을 검출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한전은 이번 BiMS 시범적용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환경에 대한 최적화를 구현하고 고객 니즈파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한전 소유의 해외 ESS 설비에 적용해 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홍승현 기자

## aT, 농공상기업 신규 전용판매관 3곳 선정

### 지마켓·현대홈쇼핑·GS 리테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 지마켓, 현대홈쇼핑, GS리테일을 전용판매관으로 선정하며 유통채널을 넓혀간다고 14일 밝혔다.

농공상기업은 농업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중소 식품기업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정해 지원중이다. 현재 전용판매관은 용산역 농식품 잔류마루,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새농 등에서 운영 중이며, aT는 각 판매관 별 프로모션을 통해 농공상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데 힘써왔다.

새롭게 선정된 지마켓, 현대홈쇼핑, GS리테일은 모두 국내 주요 오픈마켓 채널이다. 농공상기업 제품이 더 넓은 소비자층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전 수출식품이사는 “농공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조업

## 주식회사 폴 테크




도로 안전표지판지주, 신호등주, CCTV지주, 가로등주, 종합플, 스마트플, 태양광 가로등주 등 도로교통지주 분야를 개발, 설계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등록, 정부 R&D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시스템을 교통지주와 결합하는 아이디어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지주



신호등주



폴테크 외부 전경



폴테크 내부 전경

### 주식회사 폴테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 대불) 공장동 106호  
Tel. 061) 464-8992 Fax. 061) 464-8993